



주 제:	“가정의 사랑”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대축일”	2007년 12월 30일
복음 묵상:	마태 2,13-15.19-23	집회 3,3-7.14-17 ㄱ	골로 3,12-21

\* 성가정의 첫 번째 덕목은 효도입니다. 오늘 제1독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죄를 벗는 것이며, 어미를 공경하는 것은 보화를 쌓아 올리는 것이다.....너는 네 아비가 늙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설혹 노망을 부리더라도 잘 참아 받고, 네가 젊고 힘있다고 해서 그를 업신여기지 마라. 아버지를 잘 섬긴 공은 잊혀지지 않으리니, 네 죄는 용서받고 새 삶을 이룰 것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가 없는 가정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 성가정의 두 번째 덕목은 부부간에 순종과 사랑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골로사이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내 된 사람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본분입니다. 남편 된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해서는 안됩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순종과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성가정의 세 번째 덕목은 하느님 공경입니다. 하느님 공경이 성가정의 삶의 근본이었습니다. 부부는 자녀들 안에서 하느님 공경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혼인 예식 때 사제는 "두 분은 하느님께서 주실 자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기르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가정의 보루입니다. (안동 안성기 신부님 강론 중에서)

1. 감사의 말씀

30 주년을 맞은 본당의 모든 행사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주님의 충실한 도구로서 모든 바쁜 일을 뒤로한 채 성가대 일에 협조하여 주신 모든 단원 가족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기에수님의 축복이 모든 가족님들에게 충만히 내리시어 새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영육간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김 지만 토마스 배상

1. 공지 사항 및 기도 요청

성심 성가대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2007년 12월 30일 (일) 교중 미사후  
 장소: 성가 연습실.  
 안건: 회계보고 및 신임 단장 선임의 건. 기타.



박사들이 물러 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에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하고 일러 주었다. 요셉은 일어나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에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내가 내 아들을 에집트에서 불러 내었다" 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헤로데가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에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미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 가라" 하고 일러 주었다.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 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가서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그를 나자렛 사람이라 부르리라" 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분 명상

“비워야 채워지는 삶” ( ‘좋은 글’ 중에서)



예전엔 몰랐습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삶을 어제보다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려고 발버둥만 치는 삶이었습니다.

항상 내일을 보며 살았으니까요  
오늘은 늘 욕심으로 채워 항상 욕구불만에  
남보다 더 갖고 싶은 생각에 나보다 못가진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가득 차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현실을,  
이제 마음을 비웠습니다,  
또 욕심이 찬다면 멀리 갖다가 버리겠습니다,  
무엇이 필요 하다면 조금만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겠습니다,  
가식과 허영을 보며 웃음도 지어 보이겠습니다.

내 안의 가득 찬 욕심을 버리니 세상이 넓어 보이고  
내가 짊 게 없으니 지킬 걱정도 없어 행복합니다.

예전에 현 자전거를 두고 새 자전거를 사서  
잃어버릴까 걱정하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마음 하나 비우면 세상이 달라지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